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수소저장 솔루션 전문기업 완주에 연구센터·공장 투자

일진하이솔루스, 전북도
완주군과 협약 체결
제조 공장 투자시 도내
생산 탄소섬유소재 활용
탄소·수소산업 성장 기대



송하진 도지사(왼쪽에서 세번째)와 안홍상 일진하이솔루스(주) 대표이사(왼쪽에서 두번째), 박성일 완주군수 등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투자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수소융합산업 거점지역으로 전북도에 수소저장 솔루션 전문기업의 연구센터 투자 및 제조 공장 투자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제조 공장 투자 시 전북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할 예정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은 물론 전북도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와 완주군 일진하이솔루스(주)는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수소탱크 연구센터 및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진하이솔루스(주)는 올해까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에서 수소저장 솔루션 관련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추가 검토를 통한 투자 확정 시 2025년까지 최대 1,034억 원을 투자해 264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수소저장 솔루션 제조공장을 설립할 전망이다.

전북도와 완주군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일진하이솔루스(주)의 수소탱크는 탄소섬유 기반의 복합소재로 만들어져 700k(bar)의 높은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첨단 기술집약적 제품으로 높은 안정성과 초경량화를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법규 인증 테스트 이외에도 일진하이솔루스(주)는 극한 조건의 테스트를 적용해 업계 최고의 차별적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승용차와 상용차 외에도 지게차, 드론, 선박 열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안홍상 일진하이솔루스(주) 대표는 "전북도와 완주군의 노력으로 전북 완주군에 추가 투자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투자가 전북도와 완주군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관련 기업들과 협업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수소도시로 성장하려면 완주에 일진하이솔루스(주)의 통큰 투자계획에 매우 감사하다"며 "완주군의 전략산업과 기업이 상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완주군의 수소산업이 혁신과 도전을 모토로 하는 일진하이솔루스(주)의 추가 투자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일진하이솔루스(주)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성장해 수소 관련 분야의 선두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염원합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은 힘' 무주군은 지난 23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군산항에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 조성

도 "올 상반기 산업부로부터
집적화단지 지정받을 것"
항만기본계획 변경 계획 후
해수부와 협의해 계획 확정

전북도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산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군산항에 중량물 부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2년 7월 군산항을 서남해 해상풍력지원 항만으로 지정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까지 선정해 부두 조성을 추진했지만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지연되면서 물동량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군산항 부두 조성을 포기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민합의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군산항 중량물 부두 조성에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북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올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군산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계획은 총 8,67GW(52조원) 규모다. 군산에는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가 집적화 돼 있고, 해상풍력과 관련된 지지구조물이나 타워, 블레이드 등을 제조하는 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속속들이 이주하며, 중량물(重量物) 부두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서해안 서남부권(전남, 충남,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간지점에 위치해 발전단지별 해상거리가 150km 내외로 운송 거리가 인접해 물류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해상풍력 산업의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계획은 전남 8.2GW(48조), 충남 4GW(20조원), 인천 0.6GW(3조원), 대만(하이퐁) 5.6GW 등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 있으며, 향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부품을 야적·조립할 수 있고 자유롭게 양·적하할 수 있는 중량물부두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는 군산항 중량물 부두 조성을 위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산항 7부두(준설토 투기장)에 대형구조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난해 5월 정부에 건의해 아적장 조성 국비 400여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군산수신정)도 7부두(준설토 투기장) 아적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3월에 발주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군산항 중량물 부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해상풍력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병승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군산항에 해상풍력 중량물 부두를 조성해 위기의 지역산업 구조개선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전북이 해상풍력의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시행

전북도가 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408여가에 어가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

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원품종으로는 해면 6종(참돔·능성어·감성돔·볼돔·전어·송어)과 내수면 9종(메기·송어·항어·민물장어·붕자개·가물치·쏘가리·잉어·철갑상어) 등 15종이다. 지원대상은 15개 품목을 생산하는 어가 중,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어가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읍·면·동)을 방문해 양식업 자격(면허/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는 5월 17일부터 100만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원×2매)를 지급한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